

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의 불교적 요소와 그 연원

김진순*

I. 머리말
II. 고구려 고분벽화의 불교적 요소
III. 5호16국(5胡16國)시기 감숙(甘肅)지역의 불교미술과 고구려 고분벽화의 불교적 요소 비교
IV. 감숙지역 초기 불교문화의 고구려 전파
V. 맺음말

I. 머리말

동서를 막론하고 아주 오랜 옛날부터 사람들은 죽음과 관련하여 영혼불멸(靈魂不滅)이나 계세사상(繼世思想)과 같은 특별한 믿음을 지니고 있었다. 그들에게 있어 죽음은 종말이 아닌 또 다른 세계로 나아가는 새로운 출발점이었고, 무덤은 영혼이 안식하며 거주하는 또 하나의 초월적 세계였다. 따라서 무덤 안에는 사자(死者)를 위한 생활용품이 부장되고, 사후의 세계를 반영하는 의미 있는 벽화들이 장식되었다.

고구려의 고분벽화도 이와 같은 고분문화권 속에서 탄생하여, 독특한 개성을 지니며 변

* 문화재청 대구 국제공항 문화재감정관실 문화재감정위원

화 발전해 갔다. 초기의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계세적 성격의 내세관을 보여주는 소재, 즉 현실 생활과 관련된 장면들이 많다.¹ 그러나 불교가 고구려 사회에 완전히 뿌리내리게 되는 5세기에 이르러 대다수의 고분벽화에서는 인물풍속적인 요소가 점차 약화되고, 그에 대신하여 불보살상·연화문·연화화생·비천·화염문 및 공양인 행렬도와 같은 새로운 불교적 소재들이 주류를 차지하게 된다. 고분벽화의 중심 주제가 불교적 내세관으로 변화한 것이다.²

불교적 모티프는 5세기보다 이전인 4세기 중반부터 이미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안악 3호분에 나타나는 소량의 연화를 제외하면, 4세기에 속하는 다른 초기 고분벽화들 가운데는 불교적 모티프가 등장하는 사례를 볼 수 없기 때문에, 이 시기 고분벽화에는 불교적 내세관보다는 계세적 내세관이 지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이 글에서는 4세기의 예는 제외하고, 불교가 국가적 차원의 공식 종교로 선포되어 왕실의 전폭적인 후원 아래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가는 5세기의 고분벽화만을 다루고자 한다.³

5세기의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무덤 내부가 불교적 내세관을 반영하는 초월적 공간으로 승화된 경우는 당시의 북조의 북방민족이나 남조의 한족 고분문화에서는 발견하기 힘든 매우 독특한 현상이다. 5호16국의 혼란을 극복하고 북중국을 통일한 북위(北魏) 효무제(孝武帝)는 한화정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였다. 따라서 북위에서는 정치제도를 포함한 사회·문화 제반에 걸쳐 한(漢)의 영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며, 고분벽화 역시 한대 고분벽화의 전형적인 특징을 그대로 보여준다. 또한 북방민족을 피해 남쪽으로 이주한 한족 정권 역시 남방의 지리적 여건과 당시의 사회·사상적 변화에 적응하여 이전과는 다른 형식의 벽화고분을 조성하였다.⁴ 따라서 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불교적 내세관의 표현은 당대의 중국 고분벽화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고구려 특유의 문화양식이라 할 수

¹ 李殷昌, 「韓國古代壁畫의 思想史的인 研究: 三國時代의 思想史的인 考察을 中心으로」, 『省谷論文』 第16輯 (1985), pp. 417-491.

²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불교적 요소는 일찍부터 주목을 받아왔다. 김원룡, 「高句麗 古墳壁畫에 있어서의 佛敎的 要素」, 『韓國美術史研究』 (일지사, 1987), pp. 287-313; 全虎兌, 「5세기 高句麗 古墳壁畫에 나타난 佛敎的 來世觀」, 『韓國史論』 21 (1989), pp. 3-71 등 참고.

³ 주지하는 바와 같이, 정확한 조영 연대를 알 수 없는 개별 고구려 벽화고분의 편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존재한다. 특히 집안지역의 무용총, 각저총, 통구 12호분과 평양 일대 삼실총 등 일부 벽화고분은 그 편년이 4세기 초에서 6세기에 이르기까지 편차가 매우 크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한국학자들의 편년을 받아들여 이들을 5세기 이후의 벽화고분에 포함시켰다. 고구려 벽화고분에 대한 한·중·일 삼국 학자들의 다양한 연대관에 대해서는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 (사계절, 2000), pp. 417-419 참조.

⁴ 중국 남북조시기 고분벽화의 특징에 대해서는 鄭巖, 『魏晉南北朝壁畫墓研究』 (文物出版社: 北京, 2002); 金鎮順, 『南北朝時期墓葬美術研究—以繪畫題材爲中心』 (中國社會科學院博士學位論文, 2005) 참조.

있다.

물론 고구려 고분벽화가 그 출발에서부터 독자성을 보여주는 것은 아니다. 주지하다시피 고구려 고분벽화는 중원문화의 자극하에 태동하였다. 하지만 고구려인들은 외부로부터 전래되는 새로운 문화 요소를 적극적으로 흡수하는 한편 무엇보다도 고구려 사회 특유의 사상적 흐름과 함께 호흡하면서 중국 대륙의 벽화 전통과 구별되는 독창적인 양식을 창조해내었던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국 학계에서는 지금까지도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중국의 영향을 지나치게 강조하는 경향이 농후하다. 그것은 이를테면 고구려 고분벽화를 구성하고 있는 제제는 물론, 벽화의 내용 저변에 흐르는 세계관조차도 중원문화의 영향을 받은 것이라 하여, 그 문화적 원류를 중국에서 찾으려는 것이다.⁵ 하지만 고구려 고분벽화의 발전 과정 속에는 중원문화의 영향만으로 충분히 설명할 수 없는 좀더 다양하고 복합적인 차원의 요소가 공존한다. 중원의 역외에 존재하면서 중원과 구별되는, 더 개방적인 문화를 구축하고 있던 북방 이민족(北方異民族)과 고구려 사이에 중원을 경유하지 않은 직접적인 문화 교류가 존재하였으며, 이것이 고구려 고분벽화를 당대(當代) 중국의 그것과는 상당히 이질적인 것으로 만드는 중요한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⁶

이 글은 이러한 시각을 바탕으로 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불교적 요소의 연원을 한족이 주도한 중원문화가 아닌 고구려에 불교를 직접 전해준 북방 이민족 국가들의 불교 문화를 통해 접근해보고자 한다. 그것을 통해 당시의 북방 이민족과 고구려에서 유행하였던 불교신앙의 형태와 불교미술을 통한 양자간의 문화적 연관성을 밝히고, 나아가 고구려의 적

⁵ 이러한 경향은 2002년 중국사회과학원 중국변강사지연중심(中國邊疆史地研究中心) 주도하의 ‘동북공정’이 시작되면서 발표된 논문들에서 한층 강화되었다. 이들 논문에서는 고구려 문화의 고유성을 인정하기보다는 중국의 중원, 즉 漢文化와의 친연성을 강조하는 것이 일종의 ‘공식처럼 되어버렸다. 관련 논문으로 姜維東, 「高句麗文化淵源概論」, 『社會科學戰線』(2004. 6), pp. 136-139쪽; 孫進己·孫泓, 「公元3-7世紀集安與平壤地區壁畫墓的族屬與分期」, 『北方文物』(2004. 2), pp. 36-43; 趙霞, 「高句麗樂舞與吳越文化的淵源窺探」, 『興文學院學報』(2002. 12), pp. 31-35; 孫進己, 「高句麗的起源及高句麗文化的研究」, 『社會科學戰線』(2002. 2), pp. 162-175 참조.

⁶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서역인과 서역문화의 영향에 대해서는 그동안 중원을 거치지 않은 고구려와 북방민족 혹은 서역인들과의 직접적인 교류에 대한 가능성을 지적한 다수의 논문들이 있다. 권영필, 「高句麗 繪畫에 나타난 對外 交涉」, 『제1회 전국미술사학대회 高句麗 美術의 對外 交涉』(예경, 1996), pp. 171-193; 안희준, 「高句麗 文化의 性格과 位相: 古墳壁畫를 中心으로」,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유산』(2004), p. 45; 전호태, 「5세기 고분벽화로 본 고구려 문화」, 『고구려의 역사와 문화유산』(2004), p. 173 참조. 특히 권영필은 중국 북조의 비한족 문화와 고구려에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문화 흐름에 대해 「北方氣流」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일찍부터 이들 문화와 한족문화와의 차별성을 강조하였다.

극적이고 활발했던 대외교섭활동과 고구려문화의 독자성을 규명할 수 있으리라 기대한다.

II. 고구려 고분벽화의 불교적 요소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불교적 모티프가 등장하기 시작하는 것은 안악3호분부터이다. 안악3호분은 묘도, 앞방, 곁방, 널방, 회랑 등의 복잡한 구조를 보여주는 초기의 다실묘(多室墓)로, 벽화의 내용은 대부분 묘주 생전(生前)의 삶과 관련된 생활·풍속 장면들이다. 이 무덤의 널방 천장과 서측실(西側室)의 남녀 묘주상에는 불교문화의 영향을 짐작케 하는 연화문 모티프가 등장한다.⁷

무덤 천장과 묘주의 장막 위에 연화문이 장식된 예는 중국 산동의 기남화상석묘(浙南畫像石墓)와 요양(遼陽) 상왕가촌(上王家村)의 서진(西晉)시기 벽화 무덤에서도 볼 수 있다. 고구려보다 앞선 시기에 등장하는 이들 연화문이 단순한 장식적 요소인지 아니면 불교적 내세관을 반영한 종교적 모티프인지는 단언할 수 없지만, 안악3호분의 경우는 단순히 무덤을 치장하는 장식적 요소라기보다는 불교적 상징물로서 무덤 내부에 등장한 것으로 이해된다.⁸ 이러한 가능성은 4세기 중반을 전후하여 민간 차원의 불교가 고구려에 전래되었음을 시사하는 문헌 기록을 통해서 좀더 뒷받침된다.⁹

372년 불교가 공식적으로 인정된 이후, 그것이 고구려 사회에 널리 뿌리를 내리게 되는 5세기 전반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불교적 요소의 벽화체계들이 크게 유행하게 된다. 이와 같이 불교적 내세관이 고구려 사회 전반에 재빠르게 확산될 수 있었던 것은 아마도 불교가 지니는 호국불교적 성격 이외에도 개인의 구원과 영생이라는 측면을 강조하였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으로 짐작된다. 이 시기에는 초기의 연화문 이외에도 묘주 생전의 불사를 다룬 장면이나 연화화생, 공양인 행렬도 등 불교적 내세관이 더 농밀하게 반영된 요소들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흥미로운 점은 이러한 불교적 요소들이 신선사상을 반영하는 체계들과 함

⁷ 이 연화문 도상을 고구려 고유의 연화문으로 보는 견해가 있다. 上原和, 「高句麗 繪畫가 日本에 끼친 영향-연화문 표현으로 본 고대 중국·조선·일본의 교섭관계」, 『제4회 전국미술사학대회 高句麗 美術의 對外 交涉』(예경, 1996), pp. 195-244 참고.

⁸ 안휘준, 「고구려 고분벽화의 흐름」, 『講座 美術史10 特輯號 高句麗·渤海 研究I』(1998), pp. 81-82 참고.

⁹ 『梁高僧傳』에는 동진(東晉)의 支遁(314-366)이 고구려의 도인과 서진 왕래를 한 내용이 전해진다. 4세기 중반 불교 전래에 대해서는 전호태, 앞의 논문, p. 54; 金理那 「高句麗 佛教圖像樣式의 展開와 中國 佛教圖像」, 『제4회 전국미술사학대회 高句麗 美術의 對外 交涉』(예경, 1996), pp. 77-78 참고.

께 공존하며 출현하는 것이다.¹⁰ 이는 바로 초기 고구려 사회에 유행하였던 신선사상에 기초한 전통적 내세관에 새로이 수용된 불교적 내세관이 융합된 선불혼합적(仙佛混合的) 내세관에서 말미암은 것으로 풀이된다.¹¹

그러나 불교신앙이 좀더 성숙해지는 5세기 중엽에 들어서면, 고구려 고분벽화의 선불혼합적 내세관은 점차 불교적 내세관에 의해 대체되고, 따라서 불교적 요소들이 벽화의 주요 모티프로 부상하게 된다. 벽면의 벽화는 마치 행렬도가 아닌 공양인 행렬도나 비천 혹은 연꽃으로 교체되고, 천장 중앙은 만개한 연꽃과 화염문으로 장엄된다. 특히, 장식벽화고분 가운데는 무덤 내부를 연꽃으로만 장식한 사례도 등장하여, 당시 불교적 내세관이 고구려인들의 사후세계관에 어느 정도까지 깊이 파고들어갔는지를 짐작하게 한다.

이 시기에 속하는 벽화고분 가운데 불교적 색채를 보여주는 대표적 예로는 집안 일대의 각저총, 무용총, 통구 12호분, 장천 1호분, 삼실총, 귀갑총, 산연화총 등과 평양 일대의 덕흥리벽화고분, 감신총, 성총, 연화총, 안악 1호분, 쌍영총, 천왕지신총, 수산리 벽화고분, 안악 2호분 등을 꼽을 수 있다. 이들의 벽화 내용을 표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¹²

5세기 고분벽화에 표현된 불교적 요소들은 크게 불·보살상과 비천(감신총, 안악 2호분; 장천 1호분), 연화문(거의 모든 고분), 연화화생(성총, 쌍영총; 삼실총, 장천 1호분), 삼각형 화염문(덕흥리 벽화고분, 감신총, 팔청리 벽화고분, 대안리 1호분, 안악 1호분; 무용총, 각저총), 공양인 행렬도(쌍영총, 안악 2호분, 수산리, 삼실총, 장천 1호분), 미륵신앙을 반영하는 묘주초상(감신총, 쌍영총, 수산리, 안악 2호분)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다. 우선 이들 묘상의 특징을 살펴보도록 하자.

¹⁰ 5세기 이후의 평양지역 고분벽화에서 불교 혹은 신선사상이 반영된 천상세계가 적극적으로 표현될 수 있었던 것은 묘실 구조의 변화에서 한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5세기에 들어서자마자 평양지역에서는 기존의 다실묘(多室墓)에서 볼 수 있었던 낮은 삼각 고임형 천장과는 별개로, 둥근 하늘을 연상시키듯 높이 솟아오른 궁륭형(穹窿形) 천장을 지닌 새로운 묘실구조가 등장한다. 궁륭형 천장은 삼각고임형 천장과 달리 화면이 크고 평면적이어서 회화적 표현이 훨씬 용이하다.

¹¹ 전호태, 앞의 논문, pp. 22-33 참조.

¹² 표 1, 2는 전호태, 『고구려 고분벽화 연구』(세계철 2000)와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 유적』(서울대학교출판부, 2000)을 참고하여 작성한 것이다.

표 1 5세기 평양지역 고구려 벽화고분과 벽화 내용

고분 명칭	편년	벽화 내용							
		벽면		천장		천장석			
		앞방	널방	앞방	널방	앞방	널방		
덕흥리 벽화무덤	408년	마차행렬, 묘주초상, 배알도, 집건도 등		묘주부부상, 칠보행사 蓮池, 마사도, 외양간		서수, 선인, 삼각화염문	연화	연화	연화
감신총	5세기 전반	감실 불교신상 묘주초상	마차행렬 베레공양 새탄선인	수렵, 봉황, 장방		서왕모 연화, 주작 삼각화염문	?	연화	?
안악1호분	5세기 전반	행렬, 수렵, 전각		서수, 해, 달, 별자리 삼각화염문, 연화				?	
성총	5세기 전반	봉황, 연화, 연화화생		해, 별자리				?	
천왕지신총	5세기 중반	?	연화귀감문 묘주부부상, 연화	천왕지신, 서수, 선인 해, 달, 별자리				?	
쌍영총	5세기 후반	청룡, 백호, 문지기	공양행렬, 묘주부부상 현무, 주작, 연화정병	해, 달 화염문				연화	
안악2호분	5세기 후반	공양행렬, 비천, 문지기, 묘주부부상, 연꽃		연화				연화	
수산리 벽화무덤	5세기 후반	묘주부부행렬, 교예도, 연꽃 묘주부부상, 배알도, 마구간		연화, 역사상				?	

표 2 5세기 집안지역 고구려 벽화고분과 벽화 내용

고분 명칭	편년	벽화 내용								
		벽면		천장		천장석				
		앞방	널방	앞방	널방	앞방	널방			
각저총	5세기 초	나무, 맹견	씨름, 주방, 마차 묘주부부상	삼각화염문	해, 별자리 달, 장식문 삼각화염문	?	연화			
무용총	5세기 전반	나무, 말 인물, 가옥	연회장면, 사냥 묘주생활도	삼각화염문	삼각화염문 선인, 서수 연화, 수박희해, 달, 별자리	?	연화			
통구 12호분	5세기 전반	행렬, 맹견, 舞樂 묘주부부상	전투, 개, 사냥인물 묘주부부상, 연화	연화	연화	무늬	?			
장천 1호분	5세기 중엽	연화, 생활·풍속, 연화, 갑주무사, 문지기	연화	불, 보살, 비천 예불도, 연화 연화화생, 서수 사진, 역사	연화		해, 달 북두 칠성			
삼실총	5세기 중엽	행렬, 수렵, 수문장, 攻城 묘주부부상	역사 갑주무사	역사	쌍사진 나무 구름	사진, 서수 선인, 연화 연화화생	사진, 서수 선인, 연화 연화화생	?	해 달 성좌	해 달 성좌

1. 불·보살상과 비천

1) 불상과 보살상

불상은 예배 또는 숭배의 대상이다. 따라서 성스러운 종교적 대상인 불상이 죽은 자의 무덤에 등장하는 것에 대해서 불교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런데 불교 신앙이 전래되는 초기 단계에서 이처럼 불상이 무덤의 벽화와 부장품에 장식 모티프로 등장하는 예는 중국에서도 적잖이 발견된다. 내몽고의 화림격이묘(和林格爾墓), 산둥성의 기남화상석묘(沂南畫像石墓), 하남성 밀현(密縣)의 타호정묘(打虎亭墓)와 같은 한대(漢代)의 벽화고분이나 장강 유역의 오대(吳代) 고분에서 발견된 혼병(魂瓶), 동경(銅鏡)과 같은 유물에 불·보살상 및 연화문 등의 불교적 요소가 장식되어 있다.¹³ 이는 불교 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부족한 상태에서, 그것이 중국 제래의 전통적 내세관 속에 흡수·동화되어 가면서 나타난, 이를테면 이문화(異文化) 유입의 초기 단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일반적 현상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¹⁴

고구려 고분벽화 중 불상과 보살상이 함께 표현된 고분은 장천 1호분이다. 이 무덤의 벽화에는 비천, 연화화생, 연꽃, 예불도 등의 장면도 함께 묘사되어 있어, 고구려 고분벽화 가운데 가장 농후한 불교적 색채를 보여준다. 불상이 묘사된 곳은 앞방 안쪽 벽의 천장부분이다(도1).

이 불상은 화염 광배(火焰光背)와 대좌(臺座)를 갖추고 있는 모습으로, 결가부좌에 선정인의 수인을 결하고 있다. 대좌는 수미좌의 형태이며, 대좌 양 옆에 배치된 두 마리의 사자는 밖을 향하여 웅크린 자세로 앉아 있다. 화염 광배 뒤로는 화개처럼 보이는 검은 물체가 보인



도1 불상, 앞방 북벽, 장천 1호분, 5세기 중엽, 집안

¹³ 중국 고분에 등장하는 초기 불교 도상에 관해서는 楊秋莎, 「漢魏時期蜀漢蜀漢·孫吳墓葬中的佛教遺物—兼長江流域的佛教傳播」, 『四川文物』 第5期(2003), pp. 44-49와 Wu Hung, "Buddhist Elements in Early Chinese Art (2nd and 3rd Centuries A.D.)", 『Artibus Asiae』 Vol. XLVII (1986), pp. 263-352 참고.

¹⁴ 양홍, 「四川早期佛教圖像」, 『考古』 第11期(1996).



도2 불상, 앞방 서감실, 감신총, 5세기 초, 평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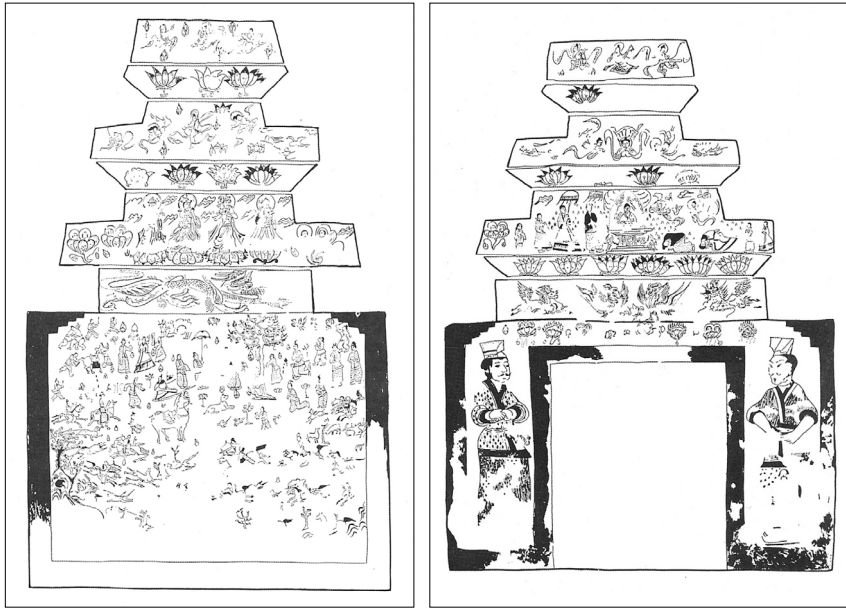
도3 보살상, 앞방 서벽 천장, 장천1호분

다. 이처럼 결가부좌에 선정인의 수인을 결한 불상과 사자가 떨어진 수미좌는 서진시대 불교 미술에서 매우 유행한 형태이며 북량시대의 불상에서도 자주 발견된다. 특히 북평에서 발견된 5세기 초의 고구려 불상이 이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고구려 초기 불상의 시원적 형태를 연구하는 데 매우 중요한 자료적 가치를 지닌다.¹⁵ 불상의 오른쪽에는 묘주부부로 보이는 인물이 불상을 향해 예불하고 있는 모습이 보이며, 왼쪽에는 남녀 시종이 화개를 들고 이들 부부를 지켜보는 모습이 그려졌다.

고구려 고분벽화 가운데 불상과 관련해서 주목해야 할 또 하나의 고분은 감신총이다. 감신총은 앞방에 감이 딸린 이실묘(二室墓) 구조로, 동서 양 벽의 감실(龕室)에는 인물상이 그려져 있다. 그중 불상으로 추정되는 상은 바로 서벽 감실에 있다(도2).¹⁶ 붉은 옷을 입고 평상 위에 정좌한 이 상은 얼굴과 가슴 부분이 훼손되어 정확한 모습을 알 수 없으나, 남아 있는 양손의 형태는 전법륜인(轉法輪印)인 듯하다. 특히 눈길을 끄는 것은 주인공 뒤로 병풍 대신 미륵보살의 권좌로 사용되는 역삼각형의 등받이가 배치되고 평상 밑으로 연화대좌가 등장한 것이다. 이 불상이 미륵보살상이라고 단언할 수는 없으나 바로 이러한 요소들이 이 상을 불상으로 추정케 하는 주요 단서가 된다.¹⁷

15 장천 1호분 벽화의 불상과 고구려 초기 불상에 대한 연구로 文明大, 「長川1號墓 佛像禮拜圖壁畫와 佛像의 始原問題」, 『先史와 古代』 1 (1991), pp. 137-153; 김리나, 앞의 논문, pp. 81-85 참고.

16 감신총의 동벽 감실에 묘사된 상을 불교신상으로 보고 있는 견해로 이태호, 『고구려 고분벽화 해설서』(폴빛, 1995), pp. 57-59쪽; 이계중, 「고구려·백제·신라의 중국미술 수용」, 『한국고대사학회 발표논문집』(2000) 참고.



삽도1 (좌) 벽화선묘도, 앞방 서벽, 장천 1호분, (우) 벽화선묘도, 앞방 북벽, 장천 1호분

장천 1호분에는 불상 이외에도 고구려 고분벽화 가운데 유일하게 보살상이 등장한다. 천장 고입부의 2층에 표현된 보살상은 모두 8구로 불상이 그려진 안쪽 벽을 중심으로 좌우 벽에 4구씩 대칭으로 그려졌다. 얼굴에는 수염 장식이 보이며, 머리 뒤로 두광이 씌어 있다. 영락 장식을 목에 걸고서 연화대좌를 밟고 서 있는 모습이다(도3).

2) 비천

지금까지 발표된 자료에 의하면,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비천이 등장하는 예는 장천 1호분과 안악 2호분 단 두 기뿐이다. 다른 벽화고분들이 불교적 내세관과 채래적 내세관이 혼합된 선불혼합적 내세관을 보여주는 것에 비해 이 두 고분은 5세기 벽화고분들 가운데 가장 능후한 불교적 내세관을 보여준다. 옷자락을 나풀거리며 고운 자세를 뽐내는 비천들에 의해 무덤 내부는 장엄하면서도 아름다운 종교적 분위기를 연출한다.

장천 1호분에는 전실 천장 2층과 3층 고입부에 20여 구의 비천이 등장한다(삽도1). 악기를 연주하거나 연꽃 접시를 받쳐 들고 산화(散花)하는 모습으로 그려진 비천들은 상반신이

¹⁷ 미륵의 권좌로 사용되는역삼각형 의자에 대해서는 이제중, 위의 논문 참고.



도4 비천, 앞방 동벽 천장, 장천1호분



도5 비천, 널방 동벽, 안악2호분,
5세기 후반, 황해남도

반라이며 하늘거리는 천의에 의지해 비행하고 있다(도4). 화면에 달라붙은 듯 평면적으로 처리된 몸체나 정면형의 다리 표현에서 아직은 서툰 회화 수준을 엿볼 수 있다. 비천 주위에 떠다니는 연꽃 봉우리들은 이곳이 불교의 정토세계임을 암시한다.¹⁸

이보다 늦은 시기인 5세기 후반경에 조성된 안악2호분의 비천은 장천1호분보다 기법면에서 좀더 숙련되고 자연스러운 모습을 보여준다(도5). 안악2호분의 비천은 널방 남벽 입구와 동벽에 두 구씩 모두 4구가 등장한다. 장천1호분의 비천상이 모두 천장부에 묘사되어 묘실 벽의 세속적 장면들과는 동떨어진 천상의 불국토를 상징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반해, 안악

¹⁸ 장천1호분의 천장에 묘사된 기악천인, 비천, 연화, 연화화생, 예불도 등이 모두 미륵신앙의 도솔천을 묘사하고 있다는 주장이 주목된다. 崔鎔植, 「삼국시대 미륵신앙과 내세의식」, 『강좌 한국고대사』 8 (2002), pp. 232-236 참조.

2호분은 마치 주인공의 영혼을 불국 정토로 인도하듯 묘실 벽의 행렬도 바로 위에 묘사되어 있다. 비례가 잘 갖추어진 세련된 자세의 두 비천이 양손으로 연꽃 접시를 받쳐 들고 나란히 비행하는 모습에서 사자(死者)가 염원하는 평화로운 불국토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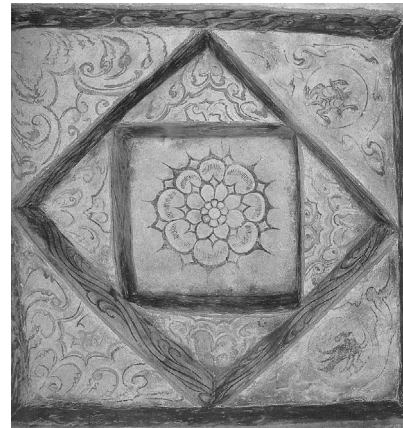
2. 연화문, 연화화생 및 화염문

연화문은 불교적 색채가 강한 5세기 고분벽화에서뿐만 아니라 초기부터 후기의 벽화에 이르기까지 오랜 시기에 걸쳐 가장 빈번하게 출현하는 요소이다. 그 원인을 짐작해보면 아마도 불교에서 새로운 탄생을 의미하는 연꽃이 무덤벽화의 기능과 잘 부합되기 때문일 것이다. 연화문의 장식 범위는 주로 천상을 상징하는 천장부의 고임돌이나 천장 중앙이며, 묘실 벽면에 나타나는 경우에는 주로 생활·풍속 장면이나 묘주부부 주변의 빈 공간에 묘사된다. 또한 미창구 장군무덤이나 산연화총과 같은 장식고분에서처럼 묘실 전체에 걸쳐 꾸며진 예도 있다.

천장 고임부에 연화가 표현된 고분 중 주목할 만한 예는 장천 1호분, 덕흥리 벽화무덤, 쌍영총과 안악 2호분 등이다. 특히 장천 1호분의 고임돌 아래에는 측면의 화려한 연꽃이 장식되었는데, 고임돌 정면의 공중을 떠다니는 연화 표현과 함께 불교적인 천상의 분위기를 잘 보여준다(도4).

천장 중앙의 천장석에 활짝 만개한 연화문이 장식된 예로서는 쌍영총이 대표적이다. 삼각고임 방식으로 축조된 천장에는 중앙의 연꽃을 중심으로 화염문, 그리고 천계를 상징하는 해와 달이 표현되었다(도6). 이처럼 천장 중앙에 연꽃을 크게 그려 넣은 경우는 화북지역 한대 벽화고분이나 5세기 무렵 감숙지역의 석굴벽화에서도 볼 수 있다. 그 가운데 석굴벽화와 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하는 하늘 연꽃은 당시 사람들이 신앙한 불교의 사후세계관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즉, 하늘을 상징하는 중앙에 연꽃을 표현함으로써 무덤 내부를 화생(化生)의 기운이 가득한 불교적 공간으로 승화시킨 것이다.

연화문이 불국토에서의 재생(再生)을 암시적으



도6 하늘연꽃, 앞방 천장, 쌍영총, 5세기 후반, 용강



도7 연화화생, 앞방 천장 서북모서리, 장천 1호분

로 상징한다면, 이는 사람이 직접 연꽃으로부터 탄생하는 연화화생의 표현을 통해 좀더 구체적으로 시각화된다. 연화화생은 중국에 불교가 전래되는 단계에 제작된 감숙지역의 초기 석굴벽화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하여, 북조시대의 석굴미술이나 6세기 남조 고분벽화에서 매우 유행하게 된다. 그런데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는 중국 벽화보다 빠른 5세기 전반부터 연화화생이 유행하기 시작한다. 집안 일대의 장천 1호분과 삼실총 그리고

평양 일대의 성총과 쌍영총에서 연화화생의 제재가 표현된 것을 발견할 수 있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연화화생 표현은 연꽃 봉우리로부터 바로 사람이 화생하는 형태, 연꽃 봉우리 주변에 표현된 화염이나 서기(瑞氣)를 통해 생명의 탄생을 암시하고 있는 형태, 그리고 연꽃 정병에 화생의 기(氣)를 표현하여 생명의 태동을 알려주는 형태 등 세 가지로 구성된다. 첫 번째와 두 번째 유형은 장천 1호분에서 모두 발견된다(도7). 그림 7에서 보는 것처럼 막 피어오른 연꽃봉우리 사이로 남녀 동자(童子)가 탄생하고 있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다. 세 번째 유형의 연화화생은 쌍영총에서 볼 수 있다. 이 연화화생은 영원한 삶을 희구하는 고구려인들의 전통적인 내세관에 잘 부합하는 요소로 정토왕생(淨土往生)에 대한 사자의 간절한 염원을 담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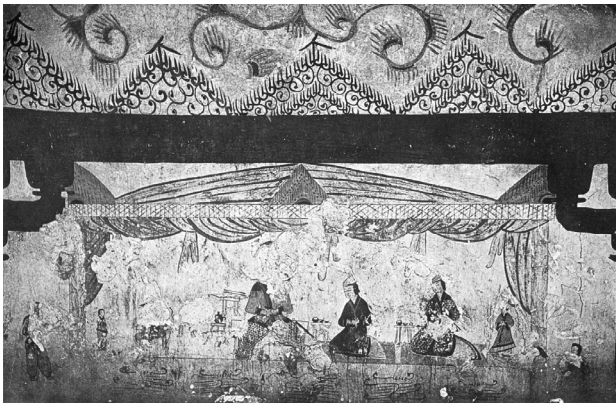
연꽃이 묘사되는 무덤 내부의 또 다른 공간은 바로 묘실 벽이다. 초·중기 고분벽화에서 묘실 벽은 주로 묘주 초상이나 묘주와 관련된 인물 혹은 생활·풍속 장면이 그려지는 공간이다. 연화문은 주로 이들 주변의 빈 공간에 나타나며, 여기 저기 훑날리는 연꽃 봉우리로 인해 화면 전체는 마치 현실세계가 아닌 듯 불교적 분위기로 가득 차 있다(도8).

연화문과 함께, 새로운 생명의 탄생과 관련하여 중요한 상징성을 지니는 제재가 바로 화염문이다.¹⁹ 화염문은 덕흥리 벽화고분, 감신총, 안악 1호분, 무용총, 각저총 등 5세기 전

19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화염문의 의미에 대해서는 이승란 「高句麗古墳壁畫의 天上表現에 나타난 火焰紋의 意味와 展開」, 『美術史學研究』 220(1998), pp. 1-43 참조.



도8 생활·풍속 장면, 앞방 서벽, 장천1호분



도9 화염문, 널방 북벽, 각저총, 5세기 초 집안

반의 벽화고분에 등장한다. 화염문은 주로 천상세계를 상징하는 천장의 삼각고임면이나, 현실과 천상세계의 경계가 되는 곳에 장식된다. 또한 덕흥리 벽화고분, 안악2호분, 쌍영총, 무용총, 각저총에서와 같이 묘주 초상의 장막 위에 표현되기도 한다. 도9는 각저총 널방 안벽의 묘주부부그림이다. 현실과 천상을 구분 짓는 들보 위로 삼각 화염문이 나타나며, 묘주부부가 거처하는 장막 위로도 화염문이 보인다.

3. 공양인 행렬도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는 생활·풍속적 요소가 강한 초기부터 5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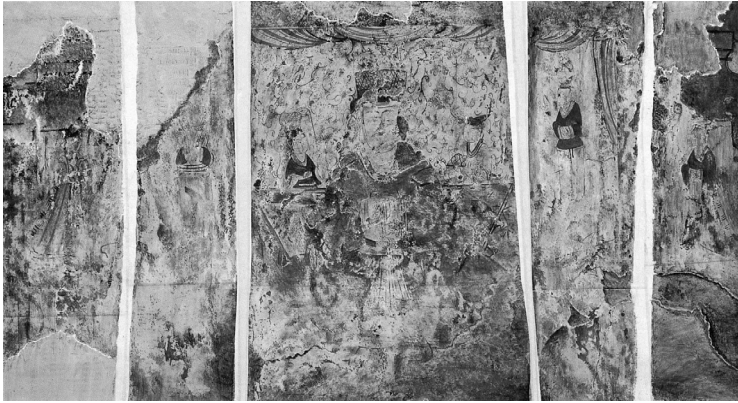
도10 공양인 행렬도, 널방 동벽, 쌍영총

대규모의 묘주 행렬도가 유행한다. 묘주 행렬도는 평양 일대에서는 매우 성행하지만 집안지역에서는 통구 12호분을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며, 그 규모도 평양 일대의 벽화보다 작다. 이와 같은 지역적 차이 때문인지 현재까지 알려진 공양인 행렬도는 집안지역에서는 삼실총 이외에는 등장하는 사례가 없고 평양 일대의 벽화고분에서 유행한다(표1, 2 참조).

공양인 행렬도는 첩첩이 포개어진 무리들이 이끄는 웅장한 규모의 묘주 행렬도와는 다르게 규모가 작으며 인물들도 일렬로 늘어선 모습으로 묘사되어 있다. 쌍영총과 안악 2호분의 묘실 벽에는 승려가 앞에서 인도하거나, 연꽃을 손에 쥐고 일렬로 나아가는 행렬도가 그려졌다(도10). 도 10은 향로를 머리에 인 시녀와 승려가 차례로 앞서고, 그 뒤를 묘주 부인으로 보이는 여인과 또 다른 시종들이 따르는 모습이다. 안악 2호분의 행렬도에서는 두 구의 비천이 행렬을 인도하는 듯 앞서고 그 뒤로 공양인들이 연꽃 줄기를 손에 쥐고 일렬로 행진한다. 이는 묘주 생전의 봉불활동(奉佛活動)을 묘사한 것이거나 혹은 묘주의 극락왕생을 비는 가족들의 공양 행렬을 묘사한 것이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공양인 행렬도는 다른 불교적 제재에 비해 다소 늦은 5세기 중반에 이르러 등장한다. 감숙 및 화북 지역 북방민족의 불교미술에서는 4세기 말부터 매우 보편적으로 사용되던 소재이다.²⁰

²⁰ 공양인 행렬도는 병령사 석굴, 돈황 막고굴 등 감숙지역의 초기 석굴벽화와 화북지역의 대동 운강석굴 및 낙양 용문석굴 그리고 북위시기 이후 대량으로 제작된 불교 조상비(造像碑)에서 일반적으로 발견된다.



도 11 묘주초상,
앞방 동벽, 감신총

4. 묘주초상

묘주초상화도 초기 고분벽화에서부터 5세기 말까지 오랜 시간 동안 유행한 제제이다.²¹ 안악3호분 및 덕흥리 벽화고분과 같은 초기의 묘주 초상은 거자 병풍이 쳐진 평상 위에 주미를 들고 삼족빙궤(三足憑几)에 양팔을 걸친 채 정좌한 모습이다. 모두 정무(政務)를 보고 받는 장면으로 묘주 생전의 위엄과 권세를 상징한다.

5세기에 들어서면 묘주초상은 이전과는 다른 도상적 특징을 보여준다. 평상 뒤에 거자 형태로 둘러진 병풍은 역삼각형의 등반이로 바뀌고 묘주의 거처로 활용되던 장막도 기와집과 함께 등장하거나 아니면 아예 사라지고 기와집만 단독으로 등장한다. 이런 사례에 속하는 고분으로는 감신총, 안악2호분, 쌍영총, 수산리 벽화고분 등을 꼽을 수 있다.

그 가운데 위와 같은 변화를 보여주는 가장 빠른 사례는 감신총이다. 감신총 묘주초상에는 안악3호분이나 덕흥리 벽화고분의 묘주상과는 달리 병풍 대신 역삼각형의 등반이가 등장하고, 평상 밑으로 연화대좌가 나타난다(도 11). 등반이 뒤에는 두 명의 시종이 좌우 대칭을 이루며 배치되어 있다. 이런 도상적 특징은 맞은편의 서감실에 그려진 불상과 매우 유사하다.

²¹ 고구려 고분벽화에 묘주상이 그려진 사례는 황해도 지역의 안악3호분과 평양 일대의 덕흥리 벽화고분, 태성리 1호분, 장산동1호분, 약수리 벽화고분, 감신총, 천왕지신총, 수산리 벽화고분, 매산리 사신총, 쌍기동 벽화고분, 안악2호분, 대안리 1호분, 보산리 벽화고분 등 모두 13기이며, 집안지역의 것으로는 씨름무덤, 춤무덤, 그리고 통구12호분 등 3기를 꼽을 수 있다. 이 가운데 그 형태가 비교적 안정하게 보존된 것은 안악3호분과 덕흥리 벽화고분, 약수리 벽화고분, 감신총, 쌍기동 벽화고분, 매산리 사신총, 씨름무덤, 춤무덤 등이다.



도12 묘주부부초상, 널방 북벽, 쌍영총

쌍영총의 묘주초상은 부부병좌상으로 묘주부부는 장막 아래의 가옥 안에 설치된 평상 위에 정좌한 상태이다(도12). 여기에서도 주미나 삼족빙궤처럼 초기 벽화고분의 묘주상에 등장 하던 기물들은 사라지고, 대신 감신총에서와 같이 역삼각형의 등반이가 등장한다. 특이한 것은 장막 아래에 기와집이 등장하는 점이다. 이런 기와집은 수산리 벽화고분의 묘주상에도 보이는데, 이 경우에도 역시 묘주 뒤에 역삼각형 등반이가 출현한다.

역삼각형의 등반이는 감숙지역의 초기 불교미술에서 더 일찍 등장한다. 서진시대의 병령사 석굴과 북량시대(421-439년)의 돈황 막고굴에는 미륵보살상의 조성이 매우 유행하는데 이들이 앉아 있는 권좌(權座) 뒤에서 역삼각형의 등반이를 볼 수 있다. 이 역삼각형의 등반이는 멀리 간다라에서부터 볼 수 있는 것이다.²²

또한 돈황 막고굴의 미륵 보살상들은 기와지붕 형태의 가옥 아래에 앉아 있는 모습으로 출현하는데, 이것은 도솔천의 천궁에 거주하고 있는 미륵보살을 묘사한 것이다. 따라서 쌍영총이나 수산리 벽화고분처럼 가옥 아래에서 역삼각형 등반이를 받치고 앉아 있는 묘주상은 바로 미륵신앙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이해될 수 있다.²³ 즉 묘주를 미륵보살처럼 역삼각형의 권좌와 천궁 아래에 묘사함으로써, 사후에 그가 미륵이 거주하는 도솔천에서 다시 태어나 영생하기를 염원한 것이다.²⁴

이상과 같은 사실은 초기 고구려 고분벽화의 묘주상이 묘주의 지위나 권세를 과시하는

²² 이재중, 앞의 논문, p. 4 참고.

²³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미륵신앙을 다룬 논문으로 全虎兌, 앞의 논문(1989); 이송란, 앞의 논문(1998); 최연식, 앞의 논문(2002) 등이 참고 된다.

²⁴ 고구려에 불교가 전래될 당시 북중국에서는 미륵신앙이 유행하였고 전진에서 전혜준 불교도 미륵신앙이었다. 이러한 미륵신앙은 5세기 초기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부터 나타나기 시작하여 6세기까지 매우 유행한다. 최연식, 위의 논문, pp. 220-238 참조.

중국적 표현방식과는 다르며, 특히 5세기 이후에는 그 형식이나 의미를 막론하고 상당한 변화가 발생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의심할 나위 없이 이런 변화의 중심에는 고구려에 불교가 전래되고 미륵신앙이 유행하는 시대적 상황이 자리하고 있다.²⁵ 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에 불교적 색채가 농밀하게 반영되어 있는 것도 바로 이런 점과 무관하지 않다.

지금까지 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불교적 요소들을 불상과 비천상, 연화문과 화염문, 공양인 행렬도, 묘주초상 등으로 나누어 검토해보았다. 그것을 통해 5세기의 고구려 고분벽화에는 다양한 내용의 불교적 요소가 다채로운 방식으로 그려졌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불교적 요소들은 대부분이 5세기 초에 나타나 후기까지 지속적으로 등장한다. 이들은 개별 고분과 제작시기에 따라 표현방식이 다소 변화하기는 하지만 기본 도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따라서 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불교적 요소의 연원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감신총이나 덕흥리 벽화고분, 장천 1호분과 같은 앞 시기에 속하는 고분벽화를 중심으로 파악해보아야 할 것이다. 이들 불교적 요소들이 어디에서 유입된 것일까? 다음 장에서 다루어보도록 하겠다.

III. 5호16국(5胡16國) 시기 감숙(甘肅)지역의 불교미술과 고구려 고분벽화의 불교적 요소 비교

앞장에서 잠시 언급하였듯이, 5세기의 고구려 고분벽화의 불교적 요소들은 동 시기의 북방민족이나 한족의 고분미술과는 다른 성격을 보여준다. 물론 이 시기의 남북조 제국(諸國)도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이미 불교를 받아들여 불교문화가 점차 확산되어 가고 있었지만, 고분벽화에서는 아직 그 영향을 크게 볼 수 없다. 당시 북방민족의 고분미술에서는 전통적인 매장 습속이나 아니면 한대 고분문화의 영향을 볼 수 있을 따름이다.²⁶ 또한 남방의 한

²⁵ 중기 묘주상에 보이는 불교적 성격은 도교가 성행하는 고구려 후기의 메산리사신총에 이르러서는 또 다른 변화를 보여준다. 묘주 뒤의 역삼각형 등받이는 사라지고 묘주와 그 부인들의 신체에서 더듬이와 같은 서기(瑞氣)가 뻗어 나오고 있으며 옆에 仙鬘이라는 명문도 보인다. 이는 고구려 후기에 이르러 불교가 쇠퇴하고 도교가 성행하면서 도교적 사후세계관이 뿌리를 내리는 사회 상황을 반영하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고구려 고분벽화의 묘주초상은 내세관의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변화한다.

²⁶ 한대의 영향을 보여주는 감숙 및 요동 지역의 5호16국시기 고분벽화에 대해서는 鄭岩, 앞의 논문, pp. 23-180 참고.

족 국가들은 강남(江南)지역의 새로운 지리·문화적 여건하에서 한대와는 다른 새로운 형식의 고분미술을 탄생시켰다. 남조 고분벽화에서 불교적 내세관을 반영하는 연화화생, 보살, 연꽃과 같은 불교적 요소들이 보편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불교가 국가의 열렬한 후원하에 본격적으로 발전하게 되는 남량(南梁)시대(502-557)부터이다.

따라서 5세기에 이미 본격적으로 등장하는 고구려 고분벽화의 불교적 요소를 동시기 북방민족이나 한족의 고분과 연결시켜 생각하는 것은 무리이다. 결국 고구려 고분벽화의 불교적 요소는 중국 대륙의 불교미술로부터 직접 영향을 받았다는 이야기가 된다. 그렇다면 과연 중국대륙의 어디로부터 이러한 불교문화를 받아들였을까?

당시 중국의 상황을 이해한다면 해답은 의외로 간단하다. 4세기 초에 시작하여 5세기 전반에 이르기까지 중국 대륙에서는 북방민족과 한족 사이의 전란이 끊이지 않았다. 또 국가의 수명도 길지 않았기 때문에 새로운 문화를 정착·발전시키기에는 아무래도 역부족이었다. 다만, 실크로드의 관문에 위치한 지금의 감숙 일대는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되어 있었으며, 또 서역에 가까운 곳에 위치하여 불교문화를 수용하기에 유리한 지리적 위치를 점하고 있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불교예술품을 대표하는 석굴사원은 감숙 일대를 중심으로 활발하게 조성되며 찬란한 문화의 꽃을 피운다. 앞 장에서 잠시 살펴보았듯이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불교적 요소는 도상의 측면에서나 당시의 시대적 상황에서 판단할 때, 감숙지역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제 감숙지역의 불교문화와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불교적 요소의 기원 문제를 좀더 구체적으로 검토해보겠다.

1. 감숙지역의 초기 불교

후한(後漢) 말 불교가 중국으로 전래된 이후, 삼국시대와 5호16국시대를 거치면서 불교는 중원이 아닌 감숙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융성했다. 당시 중원은 잦은 전란으로 인하여 정치, 경제 등 사회 전반이 불안정한 상태에 처해 있었으며, 그 결과 막 전래된 불교문화의 발전에 양호한 환경을 제공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반면 정치, 경제 등 여러 측면에서 상대적으로 안정을 누릴 수 있었던, 게다가 실크로드를 통해 인도로부터 소개되는 불교문화를 직접 접할 수 있었던 감숙지역에서는 북방민족 군주의 열렬한 후원 아래 수많은 서역승(西域僧)들이 역경사업과 석굴 개착 사업 등 활발한 불교문화활동을 전개해 나갔다.²⁷ 무엇보다도

²⁷ 북방민족 통치자들의 '창불' 활동에 대해서는 陳文英, 「魏晉南北朝最高統治者の“倡佛”」, 『天中學刊』 12卷6期.

이 지역 일대의 불교문화를 꽃피우고 나아가 중국 내지로 불교문화를 전파하는 과정에서 이란 및 인도 상인, 특히 4세기 이후 중국 내에서 독자적 위치를 점하여 가는 소그디안 상인들의 활약이 컸음은 주지의 사실이다.²⁸

당시 이 지역에서 번영한 불교문화의 양상을 알려주는 중요 유물, 유적으로는 사원에 세워진 석탑과 거대한 규모의 석굴사원을 꼽을 수 있다. 석탑은 주로 북량시대에 주천(酒泉)과 돈황지역 일대에 제작된 것이 대부분으로, 그중 상당수에서 기년명(紀年銘)을 확인할 수 있다.²⁹ 또한 당시에 개착된 초기 석굴사원으로는 영정(永靖) 병령사 석굴, 무위(武威) 천제산 석굴(天梯山石窟), 문수산(文殊山) 천불동(千佛洞), 돈황 막고굴 등이 있는데,³⁰ 흉노(匈奴)나 선비(鮮卑) 등에 의해 조영된 이들 석굴사원은 서역으로부터 전래된 인도미술의 특징 이외에도 북방민족 고유의 전통문화를 반영하고 있어, 당시의 생활상을 이해하는 데 매우 귀중한 자료이다. 특히 서진(西秦)시기에 조영된 병령사 169굴은 420년이란 제작연대를 알 수 있는 명문이 있을 뿐 아니라, 풍부한 벽화가 남아 있어 초기 단계의 북방민족 불교문화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

이 지역의 불교미술과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나는 불교적 요소를 비교하기에 앞서 우선 4세기 말과 5세기 전반에 걸쳐 이 지역을 지배하면서 석굴과 석탑의 조영 등 불교문화의 진흥에 노력한 서진(385-431)과 북량(401-439)시대의 불교미술을 살펴보고자 한다.

병령사 석굴은 4세기 서진시대부터 개착되기 시작하여 북위, 당(唐)에 이르기까지 활발하게 개착되었고, 이후 15세기까지 오랫동안 그 명맥이 유지되었다. 이 석굴은 184개의 감(龕)과 굴(窟)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가운데 서진시기에 개착된 것이 바로 제1감과 제169굴, 172굴이다. 그 가운데 가장 풍부한 내용을 자랑하는 것은 169굴이다.

169굴의 무량수불감(無量壽佛龕)에는 바로 서진(西秦) 건흥원년(建弘元年)이라 적힌 묵서제기(墨書提記)가 있어 이 굴의 제작연대가 420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169굴은 자연적으로 생성된 굴로서 특별한 구획이나 순서 없이 굴벽의 상하좌우로 자유롭게 벽화와 소

pp. 79-83 참고. 또한 서역에서 건너온 승려와 그들의 활동에 대해서는 陳寒, 「東晉南北朝時期印度來華僧人與漢地佛教」, 『人文雜誌』 第1期(2004), pp. 158-161 참고.

²⁸ 서역 및 중국에서의 소그디안 상인들의 활약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Étienne De La Vaissière, *Sogdian Traders*, trans. James Ward (Brill: Leiden • Boston, 2005), pp. 24-70 참고.

²⁹ 관련 자료는 張寶麟編著, 『甘肅佛教石刻造像』(甘肅人民美術出版社, 2000) 참고.

³⁰ 양주에서는 북량의 저거몽손에 의해 개착된 석굴이 가장 이른 예라고 한다. 양주지역 석굴사원에 대해서는 宿伯, 「涼州石窟遺蹟和涼州模式」, 『考古學報』 第4期(1986), pp. 435-446; 董玉祥·杜斗城, 「北涼佛教與河西諸石窟的關係」, 『敦煌研究』 第1期(1986), pp. 90-98 참고.



도13 병령사석굴 169굴, 서진 420년, 감숙

조상을 번갈아 가며 장식하였다. 그 주요 내용은 불상과 보살상, 비천, 연화문, 연화화생, 공양인 등이다. 불상에는 석가모니의 선정, 설법, 고행상을 묘사한 것도 있고 무량수불, 삼불, 오불 등을 새긴 것도 있다. 불상의 좌우에는 보통 보살이 함께 장식되었으며, 미륵보살상과 유마힐상도 보인다(도13).³¹

불상과 보살상들 위쪽으로는 연꽃 깽반을 든 비천들과 여기저기 흩뿌려진 연꽃들이 빈 공간을 장식하고 있으며, 불상 옆 혹은 아래로는 승려를 앞세운 공양인 행렬이 묘사되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불상이나 비천들의 모습에서는 아직 서역적인 요소가 농후하게 나타나는 데 반해, 공양인물들은 허리를 덮는 긴 저고리에 색동 주름치마를 입어, 당시 북방민족의 복식 및 생활·풍속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현존하는 둔황 막고굴에서 가장 이른 시기에 개착된 것은 바로 북량시대에 개착된 제 268굴, 제272굴 그리고 제275굴이다. 이들 세 굴은 남북방향으로 서로 인접해 있다.³²

³¹ 자세한 내용 및 관련 도판은 『中國石窟 永靖 炳靈寺』(文物出版社, 1989) 참고.

이 세 글의 벽화와 조각들은 모두 5세기 초에 만들어진 것들이어서, 그 내용과 양식이 매우 유사하다. 천장은 궁륭형의 삼각평행고임과 평형에 삼각평행고임을 그려 넣은 형식이다. 주요 장식 체계는 천정의 연꽃, 화염문, 연화화생, 천인 등과 벽면의 불상, 보살상, 기악천인, 비천, 공양인 혹은 공양보살 등이다. 불상은 미륵불과 미륵보살상이 중심이다. 북량시대에 미륵신앙이 유행하였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미륵신앙은 북위시기에 가서 더욱 성행하게 된다.

272굴과 275굴은 후벽에 불상을 장식하고 양 측벽을 삼단으로 화면을 나눈 뒤, 상단에 미륵보살과 천궁의 기악천인 등을 배치하고, 중단에는 본생고사와 같은 불전담과 설법도 혹은 천불을 묘사하고 그 아래에 공양인이나 공양보살 등을 그려 넣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닥면과 접하는 하단에는 삼각형 도안으로 마무리하였다. 양자 모두 동일한 구성을 보여준다.

이 밖에도 북량시대의 석굴로 무위 천제산과 문수산 천불동 등도 들 수 있다. 역시 불상, 보살상, 비천, 연꽃, 연화화생, 공양인 등의 내용으로 구성되었으며, 표현기법에서 서역 석굴사원의 영향이 강하게 나타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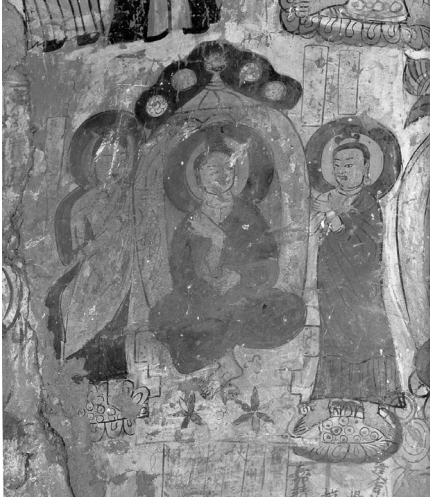
2. 고구려 고분벽화와 감숙지역 석굴벽화의 비교

흥미로운 사실은 지금까지 발견된 고구려 고분벽화의 불교적 소재들 가운데 감숙지역의 석굴 벽화에 나타나는 제재들과 도상적인 상관성을 보여주는 예들이 다수 보인다는 점이다. 지금부터 이들을 구체적으로 비교 고찰해 보겠다.

1) 불·보살상과 비천

불·보살상 및 비천상에서 감숙지역의 그것과 친연성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사례는 장천 1호분이다. 먼저 장천 1호분의 불상과 관련 있는 것으로 병령사 석굴의 169굴 6호 감벽을 꼽을 수 있다(도 13, 14). 이곳에는 수많은 불상과 미륵보살상이 묘사되었는데, 우측 중앙과 좌측 하단에 묘사된 불상의 광배 위로 장천 1호분 불상에서 보이는 것과 유사한 장식물이 등장한다. 검은 바탕 위에 꽃 봉우리들이 일렬로 묘사되어 화개처럼 보이는 이 장식물은 다름 아닌 보리수이다. 보리수 형태가 좀더 뚜렷이 나타나는 예는 더 앞선 시기의 키질 석굴에서

³² 막고굴은 前秦 建元 12년(366년) 樂傳에 의해 처음 석굴이 개착되었다고 한다. 段文杰, 『早期的莫高窟藝術』, 『中國石窟 敦煌 莫高窟』(文物出版社, 1982), 173頁. 북량시기 막고굴 석굴벽화에 대해서는 이 책의 도판을 참조.



도15 불전도, 키질 석굴, 4-5세기
 도14 불상, 병령사 석굴 169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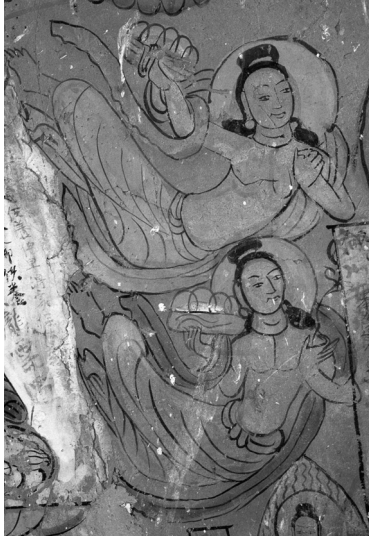
등장한다(도15). 이 석굴 벽화에서는 보리수 이외에도 미륵보살이 사용하는 역삼각형의 권좌가 등장하여 감숙지역의 초기 불교석굴미술에 대한 서역 불교미술의 직접적인 영향을 볼 수 있다.

보리수 아래의 불상표현은 감숙지역을 제외하고는 다른 지역에서 아직 발견된 사례가 없다. 특히 5세기 중엽 이후 감숙지역 석굴의 영향을 받아 개착되기 시작한 운강 석굴에서도 이러한 도상은 발견되지 않는다. 오히려 중국 대륙을 뛰어넘어 고구려 집안지역의 장천 1호분에서 유사한 사례를 볼 수 있다는 점이 이채롭다.

장천 1호분과 감숙지역과의 밀접한 연관성은 앞방의 좌우 양 벽에 표현된 8구의 보살상에서도 나타난다. 팔보살(八菩薩)은 주천에서 발견된 북량시대의 석탑에서 그 시원적 양식을 찾아볼 수 있다. 북량시대의 석탑에 장식된 제제는 바로 칠불(七佛)과 일미륵보살(一彌勒菩薩), 팔보살이 주류를 이루는데, 장천 1호분에서 팔보살이 등장한 배경에 바로 감숙지역의 불교미술이 자리하고 있다는 주장이 주목된다.³³

또한 장천 1호분에 묘사된 비천상도 감숙지역 석굴벽화의 비천상과 유사한 점이 있다. 그 가운데 병령사 석굴 제169굴의 6호 감벽에 나타나는 비천상(도16)이나, 주천에서 발견된 북량의 민주묘탑(民主州廟塔, 426년)에 새겨진 비천상을 장천 1호분의 그것(도4)과 비교해보면, 두광과 상체에 걸친 천의, 하의만 착용한 점 등에서 강한 유사성을 볼 수 있다. 특히 V자

³³ 溫玉成, 「集安長川一號高句麗墓佛教造像研究」, 『北方文物』第1期(2001), pp. 32-38, p. 70 참조



도 17 천장벽화, 돈황 막고굴 268굴, 북량

도 16 비천, 병령사 석굴 169굴

형의 비행자세와 상체와 하체 모두가 화면에 밀착되어 있는 것처럼 평면적으로 처리된 점에서 기법상의 연관성도 느껴진다.³⁴

2) 연화문, 연화화생

연화문과 연화화생은 감숙지역의 석굴벽화에서 매우 유행하는 모티프이다. 그 장식 공간도 삼각고입식 천장의 중앙이나, 석굴 벽면 등 고구려 고분벽화와 동일하다.

돈황 막고굴 제268굴에는 삼각고입의 천장 한가운데 만개한 연꽃을 장엄하고 주위에 화염문과 연화화생 도안, 그리고 비천을 표현한 예가 보인다(도 17). 흥미로운 점은 화생 하는 두 인물의 두광이 각각 흑과 백으로 다르게 묘사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러한 표현은 이미 앞에서 살펴본 장천 1호분의 연화화생의 특징과 동일하다.

그런데 장천 1호분의 연화화생과 상당히 흡사한 것이 병령사 석굴 172굴 벽화에서도 등장한다(도 18). 화면의 중앙에는 보리수 아래 묘사된 부처가 화염 광배를 뒤로하고 정좌하고 있다. 두 구의 보살이 좌우에서 본존을 협시하고 있으며, 보살의 두광 위로 화생인물이 각각

³⁴ 이와 같은 점들을 미루어 볼 때 장천 1호무덤에 나타나는 불교적 요소는 바로 감숙지역의 서진 및 북량 시기의 불교미술과 밀접한 상관성을 지니고 있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 또한 그 제작연대도 병령사 석굴과 주천 민주묘담의 연대를 감안해볼 때 5세기 전반 혹은 늦어도 5세기 중엽경으로 추정해볼 수 있다.



도 19 불상, 병령사 석굴 169굴

도 18 불상, 병령사 석굴 172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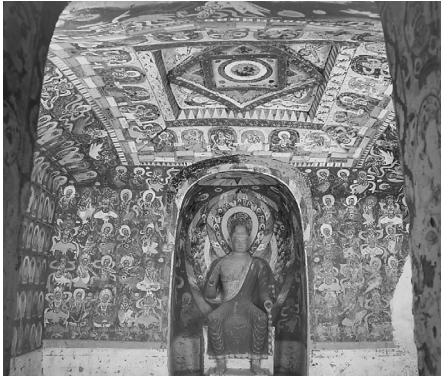
하나씩 보인다. 연꽃의 형태, 화생 중인 인물의 얼굴 모습과 머리 스타일, 그리고 무엇보다도 남녀 동자의 두광(頭光)이 흑백으로 서로 다르게 표현된 점까지 매우 흡사하다. 연꽃 위에 기(氣)를 표현하여 생명의 태동을 암시하는 또 다른 형태의 연화화생은 북량시대 문수산 천불동의 석굴벽화에서 나타난다.

석굴벽화 이외에 무덤의 천장 중앙에 연꽃이 장식된 사례는 주천의 정가갑(丁家閘) 5호 묘에서 발견된다. 이 고분은 북량시기의 것으로 추정되는데 무덤의 구조와 벽화의 내용 및 도상의 특징에서 덕흥리 벽화고분과 상당히 유사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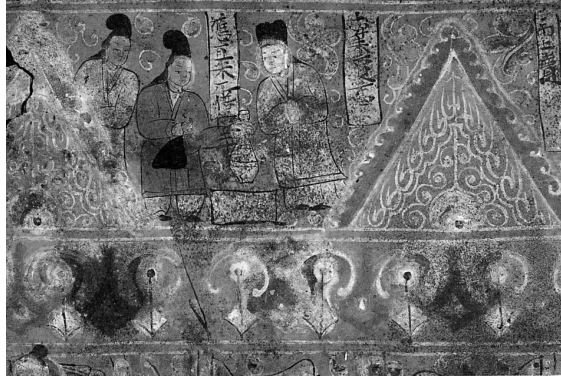
5호16국시대 감숙지역 석굴벽화의 또 다른 특징은 불·보살상과 비천상, 공양인 주변의 빈 공간에 연화문이 장식된다는 점이다(도 19). 이러한 표현방식은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도 매우 유행하여 묘주상, 생활풍속 장면(도 8) 그리고 불교적 내세관을 반영하는 천상세계에 연화문이 빈번하게 등장한다.

3) 화염문

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의 불교적 요소 가운데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것으로 삼각화염문이 있다. 이런 삼각화염문은 감숙지역의 초기 불교석굴(도 17, 20)과 5세기 중반의 북위 운강 석굴 그리고 5세기 후반의 북위 고분미술(도 21)에서도 등장한다. 이 삼각화염문은 중국



도 20 천장화, 돈황 막고굴 268굴, 북량



도 21 화염문, 칠관화, 북위(484-486년경), 영하 고원

남방지역에서는 발견된 예가 없기 때문에 그것이 북방민족들 사이에서만 유행하였던 문화요소임을 알 수 있다.³⁵

도상적 특징으로 볼 때, 돈황 막고굴의 화염문(도 17)처럼 삼각화염문 내부에 팔메트 문양이 장식된 형태는 운강 석굴에서 확인된다. 또한 영하 고원 북위 고분에서 출토된 칠관화에 묘사된 보주형 화염문(도 21)은 무용총, 각저총의 묘주상 및 천장에 묘사된 삼각화염문을 혼합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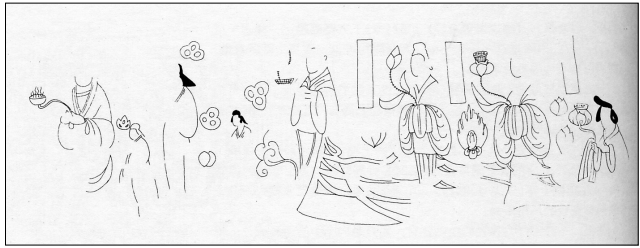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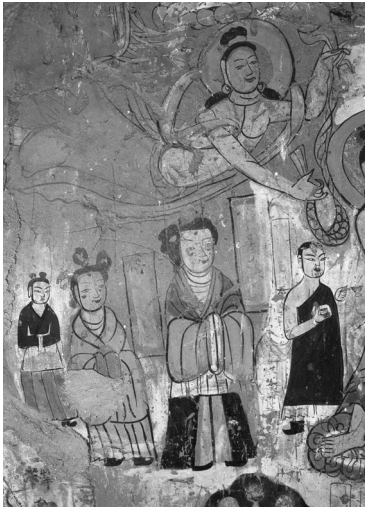


도 22 화염문 내몽고노인올라 고분, 기원전 1세기

놓은 듯한 특징을 보여준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이 모두 5세기에 이르러 등장한다는 사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국의 북방지역보다 고구려 고분벽화에서 먼저 등장하였다는 점이다.³⁶ 그러나 이보다 훨씬 앞서 기원전 1세기경의 내몽고 노인올라 흉노 무덤에서 이와 관련한 매우 중요한 유물이 발견되었다. 이 무덤에서는 스키타이문화와 한문화의 요소를 보여주는 여러 가지 유물들이 출토되었는데, 그 가운데 천상의 동물을 묘사한 비단직물의 가장자리에 삼각화염문이 등장한다(도 22). 이처럼 기원전 1세기에 북방지역에서 이미 삼각화염문이 출현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고구려 고분벽화와 중국 북방지역의 석굴벽화 및 고분

³⁵ 권영필, 앞의 논문, pp. 183-184 참조

³⁶ 이송란, 앞의 논문, pp. 1-43 참조.



도 24 공양인 행렬도, 병령사 석굴 169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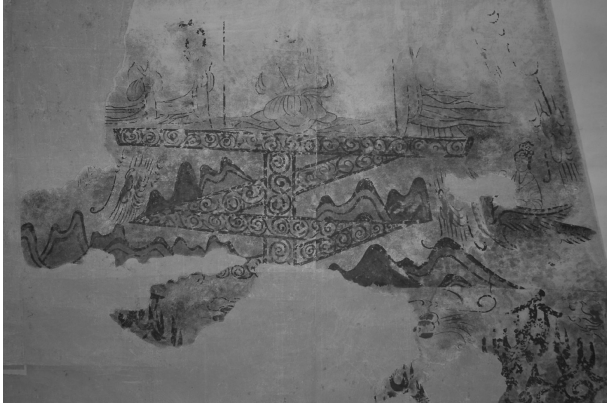
도 23 공양인 행렬도, 병령사 석굴 169굴

미술에 나타나는 삼각화염문의 영향관계를 단정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다만 이를 통해 중원의 한족문화와는 이질적인 문화요소가 북방민족들 사이에서 공유되고 있었다는 사실은 분명하게 확인할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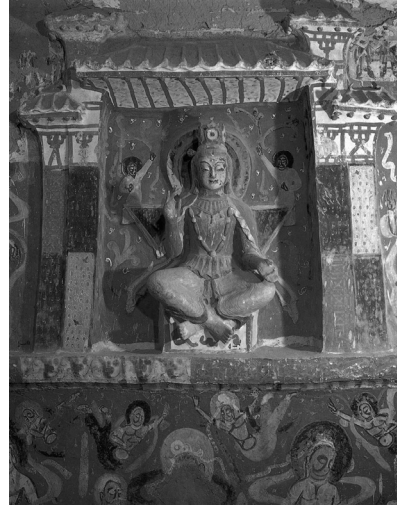
4) 공양인 행렬도

마지막으로 공양인 행렬도를 보겠다. 감숙지역의 경우 병령사 169굴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공양인 행렬도가 발견된다. 이들은 신분 차이에 따라 인물의 크기를 다르게 표현한 방식이나, 검은 머리의 스님, 향로를 든 시종이 앞서는 모습(도 23), 그리고 연꽃 봉오리를 손에 쥐고 있는 점(도 24) 등에서 고구려 고분벽화의 공양인 행렬도와 매우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도 24에서 주목을 요하는 부분은 중앙의 인물이 착용한 바람에 훑날리는 옷자락이다. 이러한 옷자락의 표현은 동진 고개지(346-407년) 화풍의 영향을 나타내는 것이어서 흥미롭다. 그러나 이보다 더욱 흥미로운 사실은 이러한 표현이 5세기 초 고구려 고분벽화에도 나타난다는 점이다. 감신총의 앞방 서벽 천장에는 서왕모로 알려진 상이 묘사되어 있다(도 25). 서왕모의 좌우에 시종으로 보이는 인물 셋이 등장하는데, 모두 아래 옷자락이 바람에 훑날리고 있다. 이와 같은 중국식의 복식표현은 다른 고구려 고분벽화에서는 발견되지 않는 특징으로, 감신총과 감숙 지역과의 직접적인 영향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감신총은 신상과 묘주상에 표현된 역삼각형의 등받이, 그리고 감실과 궁륭형의 천장구조에서도 감숙지역과의 밀접한 교류관계를 암시해준다.



도25 서왕모, 앞방 천장부분, 감신총



도26 미륵보살상, 돈황 막고굴 275굴, 북량

중국 내지에서는 공양인 행렬도가 4세기 중반부터 조영되기 시작하는 북위 운강 석굴과 용문 석굴에서부터 등장하기 시작한다. 북위시기에는 석굴뿐만 아니라 불교조상비에서도 공양인 행렬도가 크게 유행한다.

5) 묘주초상

5세기의 불교적 내세관을 보여주는 벽화 내용 가운데 가장 흥미를 끄는 것은 바로 묘주초상의 도상적 변화이다. 초기의 안악3호분이나 덕흥리 고분의 묘주초상과 달리 감신총, 쌍영총, 수산리 고분, 안악2호분 등의 묘주초상은 모두 등 뒤에 등받이가 설치되어 있다. 게다가 감신총을 제외한 나머지는 모두 기와 건축물 안에 앉아 있는 모습이다.

역삼각형의 등받이는 서역의 키질 석굴부터 감숙지역의 서진 혹은 북량시기 석굴에서 미륵보살상을 묘사할 때 항상 등장하는 기물이다(도26). 이러한 도상은 운강 석굴에서도 나타나나 미륵상이 아닌 유마와 문수보살상에서 보이며 출현 시기도 5세기 중반 이후로 고구려보다 늦다. 도26은 북량시기에 조성된 돈황 막고굴 268굴의 미륵보살상이다. 이 석굴에는 이와 유사한 미륵보살상이 다수 출현한다. 역삼각형의 등받이 기물과 등받이 좌우로 협시 인물이 묘사된 점 등이 감신총의 불상 및 묘주상과 매우 유사한 도상적 특징을 보여준다.

또한 미륵보살은 기와집 아래에 거처하고 있는데 이는 바로 도술천의 천궁을 상징하는 것이다. 따라서 안악3호분, 덕흥리 벽화고분과는 다른 새로운 형태의 묘주초상은 바로 미륵 신앙이 반영된, 즉 사후에 미륵불이 주재하는 도술천에 왕생하기를 바라는 묘주의 염원이

반영된 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미륵신앙은 감숙지역의 초기 불교와 북위시대 그리고 고구려에 이르기까지 매우 유행하였던 불교신앙의 형태이다. 감숙지역과 고구려 사이에 동일한 종교적 경향이 존재하고 그것이 양자의 미술적 체계에 반영된 것이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고구려 고분벽화의 불교적 요소들은 감숙지역의 초기 불교미술과 밀접한 연관성을 지니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불·보살상과 비천의 형태, 연화문과 연화화생, 화염문 그리고 공양인 행렬도에서 묘주초상 등 여러 가지 주제의 형태적 특징에서 양자의 친연성은 매우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요소들이 어떠한 경로로 고구려로 전래되었는지는 다음 장에서 검토해보기로 한다.

IV. 감숙지역 초기 불교문화의 고구려 전파

감숙지역의 초기 불교문화가 중원을 거치지 않고 어떻게 신속하게 고구려로 전래될 수 있었을까? 당시의 상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불교 공인 전후의 고구려의 대외관계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이다. 그와 더불어 고구려의 불교 공인과 국가적 차원의 불교진흥책이 고구려 사회와 문화 전반에 걸쳐 어떠한 영향을 끼쳤는지에 대한 종합적인 이해도 필요할 것이다.

4세기부터 5세기 초에 이르는 130여 년의 기간 동안 북중국은 16개의 국가가 흥망을 거듭하는 혼란의 시대를 경험하고 있었다. 급변하는 주변 환경 속에서 고구려도 4세기 전반까지 주변의 중국 왕조와 계속해서 무력 충돌을 벌였다. 그러나 4세기 후반에 이르러 이런 상황에 다소간의 변화가 나타난다. 이때에 이르러 고구려는 중국 왕조에 조공사절을 파견하기 시작한다. 이제 ‘명(名)’ 보다는 ‘실(實)’을 추구하는 안정적이며 실리적인 대외관계를 추구하게 된 것이다. 고구려의 대외정책에 보이는 이와 같은 변화는 342년 고구려의 수도 국내성이 전연(前燕)에 의해 함락되고, 또 371년 고국원왕이 백제와의 전쟁에서 전사하는 등 불리하게 전개되는 외부 환경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것이었다.³⁷

고구려는 355년 전연과 조공·책봉관계를 수립하여 부여지역에 대한 지배권을 인정받

³⁷ 4세기부터 5세기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의 국제정세와 고구려의 대외관계에 대해서는 盧泰敦 「5~6世紀 東아시아의 國際情勢와 高句麗의 對外關係」, 『東方學志』 44 (1984), pp. 1-57 과 여효규, 「4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고구려 대외정책의 변화」, 『역사와 현실』 36 (2000), pp. 35-70 참고

고 비교적 안정된 대중국 관계를 유지한다.³⁸ 이후 전진(前秦)의 부견이 전연을 멸망시키고 화북 일대와 요동지역을 점거하는 370년부터 384년에 이르기까지 전진과도 무력충돌 없이 시종일관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한다. 불교 역시 바로 이러한 비교적 순탄한 국제환경 속에서 372년 전진으로부터 고구려에 정식으로 전래되는 것이다.

384년 후연(後燕)이 중국의 동북부지역을 다시 장악하자, 그 이듬해 고구려는 곧바로 요동을 탈환하였으며, 이어 5세기에 들어 광개토태왕은 요동을 넘어 요서 일대 대릉하(大凌河)까지 그 세력을 확장하여 갔다.³⁹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기 고구려의 대외정책에는 하나의 기조가 일관되게 흐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즉 고구려는 국경을 맞대고 있던 북중국이나 몽고고원의 유목민족 국가와 평화관계를 구축하고 그것을 통해 주변 국제환경 속에서 안정을 추구하고자 한 것이다. 이처럼 안정된 대외관계를 바탕으로 고구려는 국가 체제를 정비, 강화할 수 있었으며, 그것은 다시 427년의 평양 천도로 이어진다.⁴⁰

5세기의 고구려 문화는 바로 이와 같은 안정적인 정치·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만개하게 된다. 특히 불교문화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하였는데, 그것은 주로 국가의 불교 공인과 왕실 주도하에 진행된 불교 진흥 등 적극적인 불교정책으로 말미암은 것이다.

『삼국사기』의 기록에 의하면 고구려에 불교가 공식적으로 전래된 것은 소수림왕 2년인 372년 전진에서 건너온 승려 순도(順道)에 의해서이다.⁴¹ 이후 소수림왕 4년(374년) 승려 아도(阿道)가 고구려에 도착하였으며, 이듬해 이들을 위해 성문사(省門寺)와 이불란사(伊佛蘭寺)를 각각 창건함으로써, 고구려 사회에 불교가 뿌리를 내릴 수 있는 토양이 마련되었다.⁴²

불교 전래 초기에 세워진 이 두 사찰의 위치나 규모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그러나 태학을 설립하고 율령을 반포하는 등 소수림왕 재위 초기에 이루어진 체제 정비에 힘입어 고구려는 새로운 국가적 기틀을 마련할 수 있었으며, 그 과정 속에서 문화적 중심의 역할을 담당하였을 이 두 사원을 기반으로 찬란한 불교문화가 전개되어 갔음을 짐작하기는 그리 어렵지 않다. 무용총 널방 안벽의 묘주 생활도에 묘사된 승려와 묘주와의 담화 장면은

³⁸ 여호규, 앞의 논문, p. 61 참조.

³⁹ 孔錫龜, 「高句麗의 領土擴張에 대한 研究」, 『韓國上古史學報』 제6호(1991), p. 147 참조.

⁴⁰ 盧泰敦, 앞의 논문, p. 1 참조.

⁴¹ 『삼국사기』 소수림왕 2년에 “진왕 부견이 사신과 함께 승려 순도를 파견하여 불상과 경문을 보내왔다(秦王符堅遣使及浮屠順道送佛像經文)”라는 사실이 전해진다.

⁴² 이 두 사원에 대한 종합적 분석을 시도한 글로 文明大, 「高句麗 初創佛敎寺院 “省門寺·伊佛蘭寺”의 考察」, 『講座 美術史』 10 特輯號 高句麗·渤海研究Ⅰ(1998), pp. 33-53 참고.

바로 외래종교인 불교문화가 고구려인들의 생활 속에 깊숙이 파고들어 있던 당시의 사회적 분위기를 잘 반영해주는 실례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주목해야 할 사실은 당시 사찰 건립을 통한 건축 기술의 축적과 신 문물의 유입으로 제고된 문화적 역량이 다른 예술 분야의 발전에도 자극을 주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즉 불교를 통해 고구려 사회에 나타난 일련의 변화와 발전은 고구려 벽화고분을 포함한 기타 고구려 예술문화의 전반적인 수준을 한 단계 향상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였던 것이다. 집안지역의 이른 시기 고분으로 인정되는 각저총, 장천 1호분 벽화에서 보이는 불교적 색채는 이러한 사회·문화적 배경하에서 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평양지역에서의 불교문화 발전은 광개토태왕 2년(393년)의 평양 9사(寺) 창건을 계기로 일대 전환기를 맞이한다. 앞서서도 잠시 지적하였듯이, 불교가 공인되기 이전에 평양 일대에는 민간차원의 불교가 이미 전래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러한 가운데 국가주도하에 불교사찰이 대량으로 건립된 것은 이 지역의 불교문화가 이제 본격적인 발전의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음을 예고하는 것이다.

이처럼 4세기 말에 이르러 고구려는 수도 집안은 물론 평양에 이르기까지 대규모의 불교사원을 조성하기 시작한다. 그런데 불교사원과 같은 특수한 종교적 시설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우선 전문적인 인력의 확보가 시급하다. 사원 건축에는 그것을 총괄하여 지휘·감독할 수 있는 경험 있는 승려는 물론이거니와, 이를테면 건축가, 공예가, 화가 등의 수많은 장인이 동원되어야 했다. 물론 평양지역은 일찍부터 한문화의 영향 아래에서 선진적인 문화를 향유하고 있었다. 또 화북지역의 혼란을 피해 4세기부터 지속적으로 고구려로 흘러들어온 중국계의 유이민은 고구려에 선진문화의 흐름을 지속적으로 전해주었다. 그렇지만 불교사원을 건축하는 것은 그들에게도 역시 다소 생소한 과제였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사업을 담당할 수 있는 전문적인 인력을 어디에서 확보할 수 있었을까?

이 문제와 관련하여 당시 중국의 상황을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다. 후한시대에 들어 중국에서는 서역계 상인들의 활약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이들은 실크로드를 통해 중국과 로마를 잇는 동서 문화교류의 매개자 역할을 담당하였다.⁴³ 당시 감숙지역은 물론 낙양 등 중원의 몇몇 대도시에는 이미 서역인들로 구성된 거주 집단이 형성되어 있었다. 이 집단 안에는 상인뿐만 아니라 장인, 수공업자, 종교인 등 여러 가지 직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섞여 있었다.⁴⁴ 이들은 중국 내에서 주요 거점을 확보한 뒤 이를 바탕으로 네트워크식의 교역 활동

⁴³ 馬雍, 「東漢後記中亞人來華考」, 『新疆大學學報』第2期(1984), pp. 18-28 참고.

을 전개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서역의 문물을 중국에 전해주는 동시에 불교문화를 소개하는 데에도 큰 역할을 담당하였다.⁴⁵

그러나 한이 멸망한 이후 화북지역이 전란에 휩싸이면서 낙양 등지에 거주하던 서역 출신의 사람들은 굶주림과 혼란을 피해 요동지역이나 감숙지역으로 이주하였다. 북위 탁발규의 정치참모였던 안동(安同)과 당나라 병부상서 이보옥(李寶玉)의 경우를 대표적인 사례로 꼽을 수 있다. 그들의 가계(家系)를 살펴보면, 당시 낙양의 서역계 집단이 전란을 피해 요동과 감숙지역으로 이주하였으며, 감숙과 요동지역에 떨어져 거주하면서도 지속적으로 왕래하였음이 드러난다.⁴⁶ 이런 사실은 당시 서역인들의 교역 활동이 중국 내지보다 이들 북방지역에서 더욱 활기를 띠고 있었음을 암시할 뿐만 아니라, 감숙지역과 요동지역을 직접 연결하는, 중원을 거치지 않은 또 다른 교통로가 있어 활발하게 이용되었음도 시사한다.

고구려의 집안과 평양 일대에서 불교사원이 본격적으로 건축되기 시작하는 4세기 말 무렵, 중국은 여전히 전란의 한가운데서 안정을 찾지 못하고 있었다. 실크로드를 통해 감숙지역까지 흘러 들어온 불교문화의 흐름은 중국 내지로 깊숙이 스며들지 못하고 정체되어 있었다. 이런 상황 속에서 고구려는 일찍부터 우호관계를 지속하여 온 북방민족들과의 교류를 통해, 당시 불교문화의 중심지였던 감숙지역으로부터 직접 새로운 불교문화의 양분을 맘껏 빨아들였다. 여기에서 감숙과 요동 일대에 거주했던 서역계 승려와 상인 및 장인들이 크게 공헌하였을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이처럼 고구려로 유입된 새로운 종교 문화의 인적·물적 자원은 사원 건축 등 불교문화의 진흥에 기여하였을 뿐만 아니라, 회화나 조각, 공예와 같은 다른 예술의 발전에도 공헌하였다. 특히 당시의 고분벽화는 사후세계를 반영하는 내세적 측면이 강하였기 때문에, 개인의 구원을 약속하는 불교사상은 고분벽화의 내용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었다. 그 결

⁴⁴ 3세기 말부터 감숙지역 및 중국 내지에서 활약한 서역승가운데 소그드인이 많았다. 紀宗安, 「活躍在絲綢之路上的粟特人」, 『雲南學報』 第3期(1989), pp. 62-70, p. 75 참고.

⁴⁵ 4세기에 이르러 서역계 상인들 가운데 소그드 상인들이 중국 내에서 독점적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데, 이들은 서방의 다양한 문물뿐만 아니라 종교까지 전래해주는 문화와 종교의 전파지역할을 담당하였다. Étienne De La Vaissière, 앞의 책, pp. 24-70; 紀宗安, 위의 논문, p. 64 참조.

⁴⁶ 안동의 조상은 이란계 상인으로 한나라 때 낙양에 들어와 거주하다가 위진시대의 혼란을 피해 요동으로 이주하여 그곳에서 정착하였다. 안동도 원래 상인이었으나 탁발규에 의해 그의 정치참모로 등용된다. 이보옥은 감숙 무위(武威) 출신으로 안가(安家)에서 분파하였다. 한나라 때 낙양에 정착하여 살다가 위진시대에 혼란을 피해 감숙 안동지역으로 이주하였다. 그 후 다시 이 일대의 혼란을 피해 요동지역으로 건너갔다가 후에 다시 무위로 이주한다. Étienne De La Vaissière, 위의 책, p. 62 참조.

과 연화문, 연화화생, 공양인 행렬도, 비천 등과 같은 불교적 요소들이 무덤 안에 등장하기 시작하였으며, 일부 벽화에서는 보살과 부처상까지도 장엄되었다. 이러한 예술적 성과는 바로 당시의 대규모 불교사원 건축과 이를 위한 새로운 인적·물적 자원의 대대적 유입이 없었다면 성취되기 어려웠을 것이다.

이와 같은 역사적, 문화적 배경으로 인해 집안의 무용총과 평양 일대의 감신총 벽화에 서처럼, 4세기 말 5세기 초의 고구려 고분벽화에 감숙지역의 불교문화 요소가 재빠르게 등장할 수 있었다.⁴⁷ 특히 당시의 장인 혹은 화가들은 사원 건축이나 묘실 건축에 모두 참여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고분 안에 장식된 불교적 요소들을 통해 당시 사원의 모습을 짐작해보는 것도 가능할 것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불교적 요소들을 감숙지역의 초기 석굴 벽화와 비교, 검토하였다. 이를 통하여 고구려 중기 고분벽화의 불교적 요소는 감숙지역의 초기 석굴벽화와 상당한 연관성을 지니면서 발전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장천 1호분 불상의 화염 광배 위로 묘사된 보리수와 감신총 이후의 묘주초상에서 등장하는 역삼각형의 등받이와 같은 도상들이 감숙지역의 미륵도상에서 출현한 후 화북지역이나 남방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고 고구려에서 나타난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사실은 바로 감숙지역의 불교문화가 중원을 거치지 않고 고구려로 곧바로 전래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중요한 단서이다.

5세기의 고구려 고분벽화에 농후한 불교적 내세관이 표현될 수 있었던 것은 국가 주도 하의 적극적으로 추진된 불교 진흥 정책과 관련이 깊다. 고구려 왕실은 불교를 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대규모의 사찰 영건 사업을 통해 불교문화의 확산과 정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그와 같은 사회적 분위기가 5세기의 고구려 고분벽화 미술에도 그대로 반영

⁴⁷ 고구려 벽화고분은 비단 벽화의 내용에서뿐만 아니라 무덤건축에서도 감숙 석굴사원과의 연관성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5세기 초 평양의 덕흥리 고분 및 감신총의 무덤구조는 안악 3호분 등의 이른 시기 무덤구조와는 완전히 다른 궁륭형 천장구조 및 감실구조 등 석굴사원과의 유사성을 보여준다. 고구려 고분과 감숙지역 석굴사원과의 연관성에 대한 논문으로 Nancy Shatzman Steinhardt, "From Gansu to Koguryo," *Between Han and Tang* (Beijing: Cultural Relics Publishing House, 2001), pp. 153-203 참고.

되어 있는 것이다. 특히 고분벽화에 감숙지역의 불교문화 요소가 농후하게 나타나게 된 데에는 당시 고구려가 처해 있었던 국제정세와 적극적인 대외정책이 크게 작용하였다고 볼 수 있다.

4세기 후반부터 5세기 전반까지 화북지역은 정치적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반면 중원의 서북쪽에 위치한 감숙 일대는 상대적 정치, 경제적 안정을 구가하면서 인접한 실크로드를 통해 서역의 불교문화를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고구려는 요동에서 중국 세력을 축출하는 한편 북방민족과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여 중국의 서북지역으로 직접 통하는 교통로를 확보하였고, 나아가 감숙 일대를 통해 실크로드를 경유해 온 새로운 문화적 요소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여기에는 중원의 전란을 피해 감숙과 요동으로 이주해 한 서역계 상인과 장인의 활약도 빼놓을 수 없는 요소로 작용하였다.

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에 보이는 불교적 정취는, 세속적 생활상이나 도교적 신화로 채워진 당시 송, 제 등 남조의 고분벽화나, 한문화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북위의 그것에서는 찾아보기 힘든 매우 독특하며 새로운 것이다. 북방민족 선비(鮮卑)에서 기원하여 한때 광활한 화북지방을 통일하였던 북위는 한화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결국 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구려는 시종일관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방적이며 진취적인 자세 또한 견지하여 새로운 문화적 조류를 적극적으로 수용하였다. 그것이 민족적 전통과 새로운 조류를 결합한 한 차원 높은 문화의 창조로 이어지게 된 것이다.

* 주제어(key words) — 고구려 고분벽화(Goguryeo tomb murals), 불교적 내세관(Buddhist afterlife), 연화화생(Rebirth), 미륵신앙(Maitreya), 감숙지역 불교미술(Gansu Buddhist Grottoes)

본 논문에서는 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에 나타난 불교적 체계들을 검토하고 이들의 연원에 대해서 밝혀 보고자 한다.

고구려 고분벽화의 불교적 모티프는 5세기보다 이전인 4세기 중반부터 고구려 고분벽화에 등장하기 시작한다. 그러나 관련 사례도 적을 뿐만 아니라 무덤의 벽화 내용도 인물 및 생활풍속 위주이기 때문에 이 시기의 벽화는 계세적 내세관을 더욱 반영한다고 할 수 있다. 불교가 국가의 공식 종교로 선포되고 왕실의 전폭적인 후원 아래 사회 전체로 확산되어 가는 5세기에 이르러, 대다수의 고분벽화에서는 인물풍속적인 요소가 점차 약화되고 그에 대신하여 불·보살상, 연화문, 연화화생, 비천, 화염문 및 공양인 행렬도와 같은 새로운 불교적 소재들이 주류를 차지하게 된다.

5세기의 벽화고분 가운데 불교적 내세관을 반영하는 대표적인 예로는 집안일대의 장천 1호분, 산연화총, 귀갑총, 삼실총과 평양일대의 감신총, 덕흥리 벽화고분, 쌍영총, 안악 2호분 등을 꼽을 수 있다.

주목할 만한 점은 이들 고분의 불교적 요소가 감숙지역의 석굴벽화와 긴밀한 연관성을 보여준다는 점이다. 그 가운데 감신총을 시작으로 묘주 초상의 등 뒤에 출현하는 역삼각형의 등받이, 장천 1호분 불상의 화염 광배 뒤에 묘사된 보리수의 표현 등은 4세기 말 5세기 초 감숙지역의 석굴미술에서 매우 유행하였던 양식이다. 이러한 체계들이 중국의 화북지역이나 남방지역을 건너뛰어 고구려에서 먼저 나타난다는 사실은 바로 중원을 경유하지 않은 고구려와 감숙지역 간의 능동적인 문화 교류를 암시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처럼 5세기의 고구려 고분벽화에 능후하게 표현된 불교적 내세관은 국가주도하에 적극적으로 추진된 불교 진흥 정책과 관련이 깊다. 고구려 왕실은 불교를 공인하였을 뿐만 아니라 이후 대규모의 사찰 영건 사업을 통해 불교문화의 확산과 정착에 적극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특히 당시 불교문화의 발전은 다른 예술 전반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이며, 이러한 사회, 문화적 분위기가 5세기의 고구려 고분벽화 미술에도 그대로 반영되어 있는 것이다.

고구려에서 감숙 지역의 불교문화 유입할 수 있었던 데에는 당시 고구려가 처해 있었던 국제 정세와 적극적인 대외정책이 크게 작용하였다. 4세기 후반부터 5세기 전반까지 화북지역은 정치적 혼란에 휩싸여 있었다. 반면 중원의 서북쪽에 위치한 감숙 일대는 상대적 안정을 구가하면서 인접한 실크로드를 통해 서역의 불교문화를 지속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었다. 고구려는 요

동에서 중국 세력을 축출하는 한편 북방민족과 우호적인 관계를 수립하여 중국의 서북지역으로 직접 통하는 교통로를 확보하였고, 나아가 감숙 일대를 통해 실크로드를 경유해 온 새로운 문화적 요소를 받아들일 수 있었다. 여기에 증원의 전란을 피해 감숙과 요동으로 이주한 서역계 상인과 장인의 활약은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였다.

흥미로운 사실은 5세기 고구려 고분벽화에 농밀하게 보이는 불교적 정취가, 당시 세속적 생활상이나 도교적 신화로 채워진 남조의 고분벽화나 한문화의 전통을 그대로 계승한 북위의 그것에서 찾아보기 힘든 고구려만의 특징이라는 점이다. 북방민족 선비(鮮卑)에서 기원하여 한때 광활한 화북지방을 통일하였던 북위는 한화정책을 무리하게 추진하여 결국 민족 고유의 정체성을 상실하고 멸망에 이르게 되었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고구려는 시종일관 그들의 문화적 정체성을 잃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개방적이며 진취적인 자세 또한 견지하여, 민족적 전통과 새로운 조류를 결합한 차원 높은 문화의 창조로 발전시켰던 것이다.

Abstract

Buddhist Themes and Motifs in 5th-Century Goguryeo Tomb Murals and Their Origins

Kim Jinsoo*

This paper explores Buddhist themes and motifs appearing in mural paintings of 5th century Goguryeo tombs, and discusses their possible origins.

Buddhist motifs made their first appearance in Goguryeo tomb murals toward the middle of the 4th century. However, until then, they were relatively rare, and as mural paintings from this period, mostly centered on figures and everyday customs, were still immersed in the native view of afterlife, they could hardly be said to represent a Buddhist worldview, which took hold of the imagination of early Koreans only much later. Once into the 5th century, when Buddhism was declared the national religion and took root in Goguryeo society, under the strong support of the royal family, the thematic dominance of traditional figures and customs on tomb murals slowly faded, in favor of images of Buddhas and Bodhisattvas, lotus designs, scenes related to the story of miraculous birth from lotus blossoms, flying female angels, flames and processions of the faithful laden with offerings.

Among 5th century tomb murals mirroring a Buddhist vision of life after death, the most representative are Jangcheon Tomb No.1, Sanyeonhwachong, Gwigapchong and Samsilchong in

* Cultural Property Appraiser, The Office of Culture Property Appraisal, Daegu International Airport, Cultural Heritage Administration

Ji'an, and Gamsinchong, Deokheung-ri Tomb, Ssangyeongchong and Anak Tomb No. 2 in Pyeongyang.

One notable thing about the Buddhist motifs in these Goguryeo tomb murals is their striking similarity to those found in mural paintings from the Buddhist grottoes in the Gansu Province of China. The back of the seat shaped like an inverted triangle against which the owner of Gamshinchong is portrayed and the details of the bodhi tree behind the flaming halo of Buddha on the mural of Jangcheon Tomb No. 1 are in the cave art style which was popular in the Gansu region between the late 4th century and the early 5th century. The fact that this style reached Goguryeo before northern or southern China suggests the existence of a lively cultural exchange between Gansu and Goguryeo, which, besides, may have been easier to access than regions lying beyond the Chinese Central Plain.

The fact that the vision of life after death expressed on Goguryeo tomb murals took on an increasingly Buddhist undertone has much to do with Goguryeo rulers' efforts to embrace the religion. In addition to proclaiming Buddhism the official religion of Goguryeo, its kings sponsored the construction of large temples to spread the new religion across its territories. The mural paintings of 5th century tombs, therefore, reflect this social atmosphere. Meanwhile, the heavy influence of the Buddhist art of the Gansu region observed on Goguryeo tomb murals from this period is largely explained by the regional political situation of the time and the Korean state's proactive external policies.

Between the late 4th century and the early 5th century, northern China was mired in political turmoil. Gansu, on the other hand, enjoyed peace and prosperity denied in the rest of region, due to its location northwest of the Central Plain, safely removed from the center of tumult. Buddhist art flourished in this region bordering the Silk Road, thanks to the continuous exchange with Central Asia. Around this time, Goguryeo gained the control of the Liaodong Peninsula, eradicating the Chinese presence from this region, and secured safe passages to northwestern China by befriending northern tribes. This provided Goguryeo with access to new and advanced cultural forms transmitted to the Gansu region via the Silk Road. The contributions of Central Asian merchants and artisans who had migrated to the Gansu and Liaodong regions, fleeing the war in the Central Plain, were also essential.

Yet, the most remarkable thing about the Buddhist imagery manifested by 5th century

Goguryeo tomb murals is that, influenced though it was by the Northern Wei Dynasty, it was quite distinct from the latter's murals, which espoused the style of Chinese southern dynasty tomb murals, and were replete with mundane scenes of daily existence and Taoist legends, unmodified, as well as inherited related Han Chinese traditions. Northern Wei, a Xianbei dynasty which controlled all of northern China in its heyday, eventually lost their ethnic and cultural identity, as the native culture faded away in favor of Han Chinese culture under the influence of a pro-assimilation policy, which ultimately brought about its demise. In a sharp contrast with the Northern Wei Dynasty, foreign cultures openly embraced by Goguryeo never completely replaced, or undermined the integrity of, its native culture. A dynamic and progressive society, Goguryeo eagerly integrated new cultural forms to its own, to shape entirely new cultural forms of a more advanced and creative kind.